

강소연구특구 성공 '한뫼'

군산대·호원대·군장대, 기술사업화·신사업 발굴 '맞손' 지역대학·새만금캠퍼스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방안도 고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의 기술 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곽병선 총장)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18일 군산대학교에서 군산지역대학인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 및 군장대학교(이계철 총장)와 기술사업화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 호원대학교 서유석 부총장 박영주 산학협력단장, 군장대학교 양현호 기획처장,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설남오 전략기획본부장(기술사업화실장 겸직)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3개 대학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신사업 발굴 및 협약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활동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군산지역대학인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와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MOU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협약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곽총장은 "그동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군산지역 대학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성공을

위한 지역대학 협의체 혹은 새만금캠퍼스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통해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들이 보유했던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제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군산이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군장대학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특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의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18일 군산대학교에서 군산지역대학인 호원대학교 및 군장대학교와 기술사업화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자 공모

9월 23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9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99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난 2019년 4월 30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지역상생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된다.

또한 시민투자(총 사업비 80% 시민 참여, 수익률 7%)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며, 창출되는 수익은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발

전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사업참여사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제안서 작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해 시 사업구조에 적합하며 제안내용의 구체성과 실현성,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월 중에는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신속하게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 하여 2021년 1월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착공할 방침이다.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공유를

목표로 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만큼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자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기자재 활용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과 통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자재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시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시민에게는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 30대 남성 5번째 코로나 확진

전북 53번째... 역학조사 주력

익산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남성은 익산 5번째, 전북 53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남성은 익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자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익산 자택에 머물렀으며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아들과 함께 전주동물원을 방문했으며 이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배산을 등반하고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모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진척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인 16일에도 오후 3시까지 같은 교회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오후 4시 자차로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동했다. 해당 교회는 개척교회로 가족들 이외의 신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17일 오후 7시 40분 용산에서 KTX 열차를 이용해 익산으로 이

동했으며 18일 오전 10시 30분 두통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이동 시 모두 자차를 이용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익산의료원 격리치료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익산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동선 파악과 카드사용내역,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해 집중 방역소독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역학조사 결과는 재난안전문자와 공식 SNS를 통해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2주 동안 공공 실내체육시설 등을 전면 폐쇄한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 2명 추가 확진... 서울발 감염

군산 지역전파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며 수도권발 추가 확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 14번째 확진자 A(50대)씨와 군산 15번째 확진자 B(60대·여)씨가 추가 확진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지역 전파에 의한 감염으로 지난 연휴기간 동안 가족이 군산을 방문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서울강남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배우자가 군산자택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인 일정을 보던 중 지난 18일

아내의 확진 판정 전화를 받고 귀가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을 받았다.

또 B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시흥시 확진자인 아들가족이 군산 집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B씨 역시 지난 18일 아들의 확진 전화를 받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모두 군산의료원에 입원했다.

군산시는 이들의 자택과 동선 장소에 대한 소독을 마쳤으며 핸드폰 GIS 및 카드사용내역 CCTV등을 확인하고 추가 동선 확인 시 즉시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교회발 코로나 적극 대응 직원교육 실시

군산시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 적극 대응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해외입국자 및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6급 공무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다소 느슨해진 방역관리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자가격리자 1대 1전담공무원에

게는 격리 종료일까지 매일 3회 전화 및 문자 모니터링(격리 이행 여부 및 증상체크), 주요 증상(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발생 시 즉시 군산시 보건소로 전화하여 검사받도록 하고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이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군산시 관계부서(보건소, 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로 연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근무요령을 전달했다.

또한, 시에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위반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감염병예방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대야 5일장 임시휴장

대야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이종정)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5일장날인 21일을 임시 휴장하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임시휴장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인회는 "대야일장은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5일장을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시민정보를 통해 임시휴장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예방 '학교급식도우미' 모집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도우미 112명을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익산 상공회의소 1층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단기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된 학교급식도우미는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급식도우미는 3개월 동안 지역 학교에 투입돼 급식실 방역과 청소,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며 1인당 월 9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859-439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지원하고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 활동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